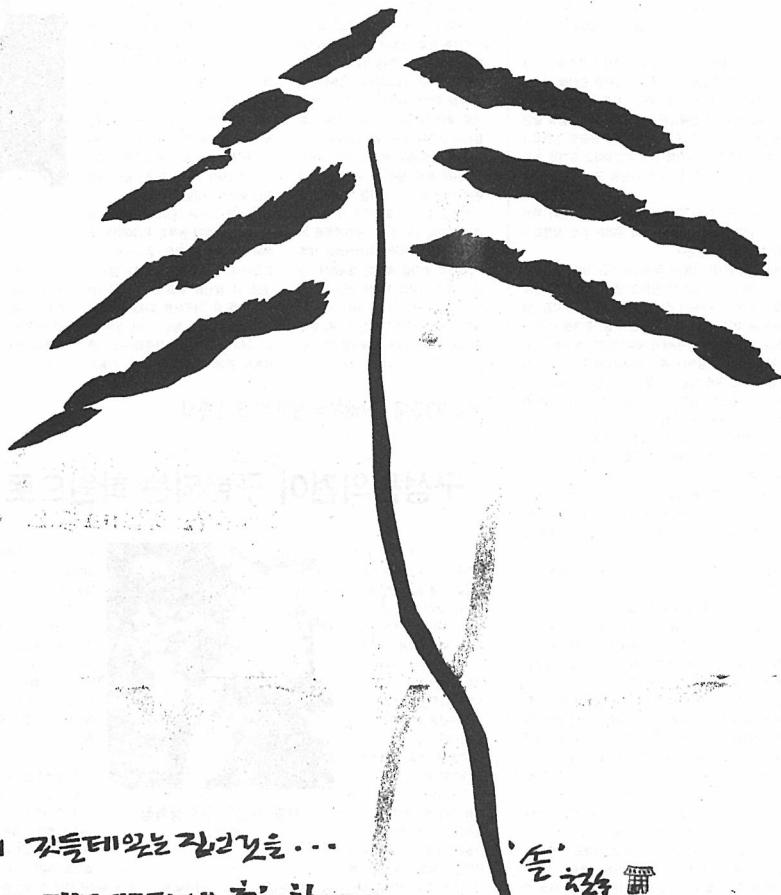




외대학보

진리 평화창조

1997년 4월 14일(월) 제689호 청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 김주간 주간 박재우 편집장 김태형 인쇄인 홍은주 외대신문사 961-4151, FAX 962-7128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 061-4152, 4468 FAX 061-4183 (동인) 0335-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흥산리 산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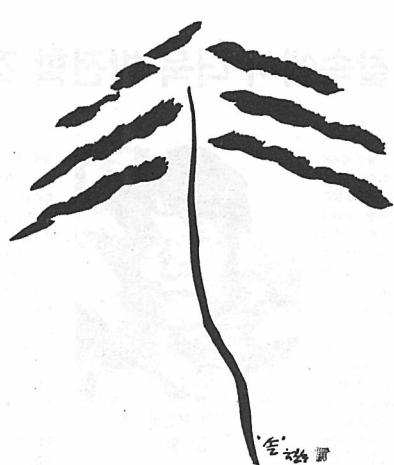


제가 보았던 것을, 그들을 이루어낸 것들 테일는 짚고 낀을...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4주년과, 그리고 43주년을 축하합니다.

술 칠성

진리 평화창조

사십삼년생 소나무



우리는 외대라는 소나무 한그루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토록 조그마한 소나무에서
가지가지를 무성하게 펼어내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 가지 하나하나 속에서 살아온지도
어느덧 '마흔세들'이 되었습니다.

43년, 한곳을 지켜온 외대 소나무의 용고집과 올곧음에
다시 한번 격려와 희망의 박수를 보냅니다.

개교
43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사 설

한보청문회, 정도로 가라

한보청문회가 14일로 69주째로 접어들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온 국민의 이목을 집착시켰던 청문회는 그러나 일 첫날부터 '오보방지하고 후보부처장' 정부수·이동근 등의 농간에 밀려들어온 국민이 우�통하는 끝이 되고 말았다. 국민들은 한보비리에 의한 경제파탄으로 인해 한 번 큰 피해를 입고 이제 청문회를 통해 또 한 번 놀랄당하는 것이다. 종언으로 나온 경매수씨 등이 주역 역할을 했지만 각 당의 특위 위원들은 원전히 들려다 서는 역할을 하고만满意的이다.

한 번지 지적되는 점이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이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었으면 텁워드를 그 위에 걸친 기도를 들어서라도 찾자한 준비를 했으면 이런 수준에서 밀쳐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여의원들이 청문회를 받아서 서로 비난하거나 기초적인 사실도 모든 쟁점 관심을 놓거나 유사·증복·벌언을 폴리피로 기초를 놓아두면서 기초를 훼손하는 모습은 청문회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일조하는데는 자의이다. 질문에 놓고 시간마다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는 데 이르면 도대체 무엇하러 청문회를 여기는 모임 정도의 기관이 된다.

"청문회나 코미디는"은 학생이 쏟아지고 "진실구렁이 어렵다"는 반응이 무성하다. 한보 청문회 무용론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속에서 우리는 한보 청문회와 관련된 허리를 짚고 넘어지기 쉽도록 안된다.

첫째 한보청문회가 밝혀내야 할 본질적 사안이 무언가 하는 점에 대한 철저한 재인식이다. 그것은 노령관에 수반비리로 다 망쳤을 암암리에 한보가 어떻게 재기하고 특비리가 청탁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문제와 그 배후의 지원·압력 세력을 확정화 밖에 나온다. 그런데 지난 의원들의 질문과 대답을 보면 일부 경매수 리스트가 드러나니 담당부처 차원에서 지난 의원의 협의·방법과 상대당 험집과 함께 험집과 함께 소리내고 있는 점이다. 특히 여당원들은 청문회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마다 한보비리로 험집과 함께 하기 위해 다른 의원들의 한보 관계 사항을 물고 늘어지거나, 중간인들의 개인비리, 제도와 험집과 함께 소리를 맞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또 권력의 충돌적 차원에서 경매수 리스트에 오른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점에 맞추어지도록 겸하고 호흡을 맞추고 있다. 특히 여의원들은 질문에 답변해 준다. 김경숙에 대해서도 어렵게 구속사건지 않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의혹이 최근에 점이다.

기신 한보비리의 뿌리는 92년 대선선거에 있음을 명백하다. 이번 한보비리사건은 그 연장선상에서 있는 후보·당원·당원과 함께 한보 관계 사항을 물고 늘어지거나, 중간인들의 개인비리, 제도와 험집과 함께 소리를 맞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또 권력의 충돌적 차원에서 경매수 리스트에 오른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점에 맞추어지도록 겸하고 호흡을 맞추고 있다. 특히 여의원들은 질문에 답변해 준다. 김경숙에 대해서도 어렵게 구속사건지 않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의혹이 최근에 점이다.

기신 한보비리의 뿌리는 92년 대선선거에 있음을 명백하다. 이번 한보비리사건은 그 연장선상에서 있는 후보·당원·당원과 함께 한보 관계 사항을 물고 늘어지거나, 중간인들의 개인비리, 제도와 험집과 함께 소리를 맞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또 권력의 충돌적 차원에서 경매수 리스트에 오른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점에 맞추어지도록 겸하고 호흡을 맞추고 있다. 특히 여의원들은 질문에 답변해 준다. 김경숙에 대해서도 어렵게 구속사건지 않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의혹이 최근에 점이다.

셋째, 제도적 보완책이다.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미국처럼 특별 위원회에 전문기록과 같은 실무조직을 두었거나, 특별감사를 임명하여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해 주는 방식이나 법률 조사기획도 충분히 주고, 검찰도 있어 협조해 주는 방식이다. 그리고 '모른다', '기억 안 낸다', '재판이나 진행중인 사건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등으로 버티는 중간인들에 대한 팽개침은 개인적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원인이다. 이런 개인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역시 경력 핵심이자이다. 날의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고 한보의 잘못된 역사에는 은폐하고 이를 급급히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92년 대선자금도, 한보비리의 물통도 밝혀지지 어려울 것이다. 그 결과로써 '경정 중단' 운동은 서태희가 발행을 허락하는 행운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그러나 한법원에 대항해 유고장을 승계 순서에 걸렸다. 한참 지난 날의 역사들을 바로잡는 것은 중요하지만 근간의 자신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현장을 바로잡는 것이 후일 바로 '역사보로잡기'를 안하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작년 초 외대학보 '주간교수'를 맡은 후, 어느 때 부터인가 '주간교수'가 아닌 '이간교수'가 되어 버렸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이라는 시간대에 필자인 글을 읽기 때문에 필자에서 불안 떨었다. 필자는 이 시간대에 필하게 되어서 시내의 한 조판소에서 학생기자들과 함께 외대학보 편집의 산고로 고생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보였고 이제는 웬만한 학생에게는 있는 편이다. 나온 신문은 곳마다 모든 예산이 가지 않을 수 있는 소이기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 대학에서 수십명의 주간교수가 대를 이어 가며 역시 선후대로 대를 이어가는 학생기자들과 남들보를 알아 가며 신문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1955년 4월 11일부터 아니 올해 4월 11일로 벌써 42년이다. 지름으로 따지면 689호이니 그간의 숨겨진 이야기를 꾸이자면 엄청난 것 같기도 하다.

돌이켜 보면 이 42년간 우리 학생은 엄청난 변화를 거耋해 왔고 한 시대의 모습을 세 계절 살피면서 그려낸 '외대학보'도 수많은 유여곡절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던가. 외대학보라면 기쁠 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개교 42주년 기념 축장축사

창학정신을 되새기며 21세기를 대비할 때



안병만 총장

캠퍼스가 신선한 활기로 가득찬 좋은 날이었다. 이날 20일 20일에 되는 본교 창립42주년 기념일은 그 어느 해의 일반적 교육이 아니라 이의 삶을 위한 외한 국어를 토대로 한 각 분야의 전문가 배양은 우리대학의 특성상을 기반으로 개척적 교육이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교육에 보면 협력에 위치는 저주의 '피'와 '세계를 호흡하는 젊은 가슴'의 두 구구들이 있는데 전자는 민족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주적 자세를 가져야함을 지향하는 그것이고 후자는 개방적 전세계를 품은 학생으로서 심각한 책임을 부여하는 학생으로서의 청년으로서의 청년입니다. 우리 교육에서는 청년에게는 개척자적 의지를 가져야 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대학은 1954년 전쟁과 평화 위에서 독특한 청학정신을 바탕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대학의 청학정신은 국어·한국인 양성이라는 대학의 일적·학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창조'는 우리 대학의 특성에 있는 '국어학·창조학'과 '평화'의 정신을 결합시키고, '유능한 지학적인 전문인 양성'이라는 대학의 개체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다른 경지에 대한 열망과 한 각 분야 전문가 양성을 통일시키며, 또한 한 개인의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육이념 역시 일

반적 교육이념과 개체적 교육이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국가와 세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이 일반적 교육이 아니라 이의 삶을 위한 외한 국어를 토대로 한 각 분야의 전문가 배양은 우리대학의 특성상을 기반으로 개척적 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교육에 보면 협력에 위치는 저주의 '피'

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대학 청학정신의 정신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교 세계화를 담당하는 최우수 국제전문인력의 양성기관으로 성장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결국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에서 학제적 연구·교류·협력으로 세계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위상과 역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대학은 우선 외국어교육

과 국제화를 세계 속의 특성화된 최우수 명문 대학으로 거듭 나도록 심기일전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청학정신을 바탕으로

최근 43년간 일로 매진하여 왔습니다. 디자인 개발에 이어화로 물들여온 이론을 윤양캠퍼스에 이화와 사회·인문·자연 과학 분야를 접대성하여 자간 6만 이우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온 오늘은 이로 있습니다. 이 43년 역사 중에 우리의 발달로서 '국제지역 전문인력 양성'의 이주가 형성되고 나가며 최우수 국제대학이 된 것은 우리의 청학정신이 국가교육정책을 움직인 신기원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곧 다음 21세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명실상부 세계화의 시대입니다.

우리대학 세계화를 담당하는 최우수 국제전문인력의 양성기관으로 성장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결국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에서 학제적 연구·교류·협력으로 세계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위상과 역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대학은 우선 외국어교

과 국제화를 세계 속의 특성화된 최우수 명문 대학으로 거듭 나도록 심기일전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개교 42주년·외대학보 창간 42주년 축사

4·19 항쟁 27주년기념축사

구성원의견이 구현되는 학원으로

역사의 주인답게 승리를 안아옵시다

누구나 생활이 되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며 미래에 대한 고민을 짙어보며 대처하는 것이다. 각 대학에서 한보 관계원과 조사·질문 능력을 강화해 특별위원회를 추진했다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한보비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점이다. 그들 모두 출신이나 대선구인자, 출신들이 한보의 직·간접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위원회는 이들의 영향권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은 성실한 출신과 날카로운 질문으로 출신들을 물어보았지만 거기에는 한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와 지지를 갖춘 위원이 요구된다 하겠다.

개교 42주년과 외대학보 창간 4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배움터 총학생회장

류종렬

그

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p

글 순서

1. YS정권 개혁이 실패한 이유
2. YS정권의 정치행태
3. YS정권의 경제 정책
4. YS정권의 통일 정책

Y S정권의 개혁쇼

집권 4년, '개혁쇼'는 끝났다

93년 김영삼 차기 정부가 시작하기 전부터 국민들과 정부 각처 공무원들은 할례마다 진행되는 개화비단에 청진이 없어 화제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로서 고집적인 경제정책, 공안 정책등의 불합리를 품을 통해 고집되었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행태를 명확히 여겨주는 몇 가지 '개혁'을 살펴보겠다.

첫째로는 물가는 국민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준 금융실명제를 살펴보자.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시작한 금융 실명제는 도입 첫날부터 주목력을 일으켰다. 실제 도입 당시인 93년 여름에는 차트 실명제가 한국 경제의 위기를 도래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도처에서 터져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경제의 중소기업이 죽으면 재벌도 죽는다는 대목을 위기로 여겼다. 왜냐하면 금융실명제는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을 어렵게 하거나 중소기업 운영에 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재벌들의 기업운영이 대부분 실명이 아닌 돈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개인이라고 생각해 견드리지 못했던 금융실명제는 일기를 1년도 채 남기지 못하고 결국 그 의의를 끝에 되었다. 금융 실명제로 인해 한국경제가 위험에 처했다는 논리인 것이다. 저축률이 떨어지고 오히려 국민들 대부분이 저축 대신 과소비를 일상화 저축률이 떨어져 기업들이 대출받을 돈이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쉽게 보이는 과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대다수는 1년 국부 일부분이 재벌이나 준재벌급의 일원들일 뿐이다. 오히려 대다수의 국민들은 뛰는 물가에 비해 적어지는 수입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금융실명제의 사실상 폐지라고 할 수 있는 실명제 완화는 경제위기라는 논리를 탑재적으로 지하의 겉돈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④ 교 43주년 및 창간 42주년 기념 외대생 설문조사

문예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총장 선출에 참여해야" 92%

올해 실시되는 총장직선제, 시행 2년째인 학부제, 공간문제, 대종평등을 질의



1. 총장선출방법의 바람직한 방법은

· 학생이 대학의 한 구성원으로서 총장 선출권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66%)



· 교수대표, 학생대표, 직원대표가 모여 브는 방법이 옳다(27%)



· 현재가 적당하다(8%)

1. 총장이 되기 위한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적 능력(42%)



· 대인관계(20%)



· 지도력(12%)



· 외모(3%)



3. 학부제의 문제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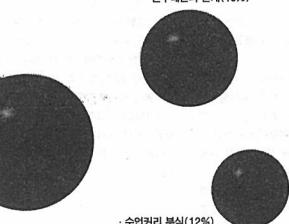
· 과에 대한 소속감 길어(38%)



· 선수배경의 관계(19%)



· 성적순의 학과배정(33%)



· 수입거리 부실(12%)

바다에는 섬이 있다!

바다를 향해 날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라는 어머니의 말을 아끼고 아기새는 바다를 향해 날아갔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처럼 비단은 끝없는 수령선이었다.

비단은 수령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만 같았다. 기도기도 수령선 뿐이었다.

기운이 다 빠져 죽음을 생각할 때쯤 아끼게 눈에 혹지같은 게 보였다.

그것은 섬이었다.

바로 바다에는 섬이 있었다.

아끼는 다시 고향을 향해 험차게 날았다.

비단에 섬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정호승씨의 '바다로 날아간 까치'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에는 섬이 있다'는 사실을 고향에 알려주려 한

아기새의 의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외대학보 창간 42주년, 어린 아기새가 되겠습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